

국보관

나후라상(산스크리트어: 라홀라)

국보

이 상은 석가모니의 십대제자 중 한 명인 나후라의 상입니다. 그러나 눈을 굳게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맹인 승려인 아나올을 묘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후라는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 전의 호칭)와 그의 아내인 야쇼다라 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나후라는 아직 어렸을 적 아버지를 설득하여 승려나 비구니의 승가(출가한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불교 집단)에 가담할 것을 허락받았는데, 이를 통해 20 세 미만의 아이가 출가하여 사미승(어린 남자 승려)으로서 수행을 하는 전통이 확립되었습니다. 나후라는 출가 후에도 아버지인 석가모니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후라는 석가모니의 제자들 중에서도 밀행(면밀한 수행), 인욕(욕된 것을 인내함), 그리고 배움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십대제자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도 734 년의 작품으로 탈할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